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비단

조선비단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가볍고 질기며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손맛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풀어난 명주실로 짠 자연섬유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누에를 순화시켜 뽕누에를 치기 시작하였고 고대시기에 누에서 실을 뽑아 비단옷을 해입었다고 한다.

황해북도 봉산군 지담리유적을 비롯한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유적들에서는 누에를 형성한 실그릇들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원사사할부터 누에치기가 진행되어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비단은 그후 천의 짜임과 무늬, 색깔, 가공방법을 달리하여 여러가지 종류로 생산되었으며 다른 천들에 비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고급감으로 리용되었다.

세나라시기에 이르러 누에

치기는 더욱 성하였으며 매우 섬세하고 높은 수준의 직조기술에 의해 아름답고 화려한 무늬를 가진 여러가지 고급비단들이 생산되어 이웃 나라들에 전파되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전국각지에는 뽕이 많이 나고 물이 좋은 곳마다 이롭던 비단생산기지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가운데서도 특히 평안도의 녕변, 성진, 함경도의 금야, 장평, 고원, 리원, 강원도의 철원, 황해도와 수안 등에서 생산된 비단이 유명하였다.

《어아주》(물고기의 이발과 같이 하얀 비단), 《조하주》(아침노을과 같이 아름다운 색을 띠는 비단)와 같은 비단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널리 수출되었다.

우리 선조들이 생산한 비단천들은 질기며 가볍고 아름다울뿐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하였다. 또한 뽕실이 커서 잘 구겨지지 않는 성질과 함께 몸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워 옷감으로 리용되었다.

우리 선조들이 생산한 비단가운데는 예로부터 황금에 못지 않게 귀하게 여겨

종류도 훨씬 늘어났을뿐 아니라 그 질이 우수하여 《고려비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웃나라는 물론 멀리 아라비아반도의 나라들에까지 수출되었다.

조선이 출현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단의 종류는 역사기록에 나오는것만 해도 모란단, 양단, 공단, 법단, 호박단, 색동단 등 30여가지나 된다.

평안북도 녕변, 박천전직공장은 공화국의 유명한 비단생산단위로 알려져있다.

공화국에서 생산하는 비단천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몸소 이름지어주신 《약산단》과 《구룡단》이 있다.

진달래꽃무늬비단인 약산단은 녕변의 유명한 약산동대의 이름을 붙인것이며 구룡단은 천의 무늬가 흐르는 강물처럼 은은하다고 하여 약산동대아래에 흐르는 구룡강의 이름을 딴것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비단생산기술은 공화국에서 국가비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참매의 인공번식 성공

공화국의 동물학연구자들이 극조 참매를 인공번식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7월 16일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에서 인공번식의 방법으로 키운 2마리의 참매가 등지우를 날아올랐다.

이 참매들은 지난 6월 7일에 알에서 깨어나온것들이다.

한편 6월 1일에 알에서 깨어나 이후 엄지가 있는 등지에 넣어 키우고있는 1마리의 참매는 지금 자유로이 날아다니고있다.

인공사육조건에서 키운 엄지가 난 알에서 깨어난 새끼 참매가 등지우를 날아올랐다는것은 참매의 인공번식에서 성공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참매의 인공번식기술을 확립하여 전국에 퍼지기 위해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와 중앙동물원 동물사양관리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수년전부터 협동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참매보호구로



선정된 함경남도 덕성군 상돌리일대에서 깨어나온 15일 가량 되는 4마리의 새끼참매를 가져다가 엄지로 키웠는데 그중 한쌍이 2018년부터 알을 낳기 시작하였다.

알에서 깨어나 새끼참매를 엄지로 키워내고 그것들이 낳은 알에서 깨어나 새끼들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키워내는 과정은 공화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연구사업이었다.

연구소 조류연구집단은 수

년간의 협동연구과정에 참매 인공번식기술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참매를 전국에 퍼지기 위한 사업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와 중앙동물원 동물사양관리연구소 연구집단의 협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로 하여 더 많은 참매들이 창공을 훨훨 날아에게 될 그날이 앞당겨지게 되었다.

본사기자

여름철 건강관리에서 주의할 점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식욕을 떨어뜨리므로 될수록 적게 먹고 대신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여름철에는 몸이 나른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공기조화기가 설치된 방에 오래 동안 앉아있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몸을 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운동은 피하더라도 아침이나 해가 진 다음 운동을 적당히 하는것이 좋다.

—몸을 지내 빨리 식히지 말아야 한다.

여름철에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면 사람들은 더위를 가시기 위해 찬물을 끼얹기 좋아한다.

달아온 몸을 지내 빨리 식히면 땀구멍들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오히려 열을 몸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또한 뇌부위의 모세혈관들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뇌압이 급부족되어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쇼크까지 올수 있다.

그러므로 땀을 다 닦아내거나 땀이 마른 다음 목욕을 해야 한다.

—물을 급하게 마시지 말아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하여

단숨에 물을 마시면 심장부담이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는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수 있다.

때문에 아무리 목이 말라도 처음에는 물을 조금 마시고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마셔야 한다.

—물인물을 마시는것이 좋다.

여름철에 사이타를 많이 마시면 소화가 잘 안되고 미칠수 있으며 콩팥에 부담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탄산음료보다 물인물을 마시는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탄산음료를 적게 마시고 물인물을 마셔야 한다.

본사기자

순단관

◆장마 만난 미장쟁이.
장마를 만나 일을 벌일수 없는 미장쟁이처럼 때를 잘못 만난 사람을 비유하는 말.

◆장사말가운데 혼사말.
이야기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번져나가는 경우에 이르는 말.

◆나막신 신고 대동배를 쫓아간다.
걸는데 불편한 나막신을 신고 빨리 가는 대동배(조선봉건왕조시기 인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던 대동미를 싣던 배)를 쫓아간다는 뜻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을 빈잔조로 이르는 말.

왜적을 치자 (2)

글 김정민, 그림 리성일

눈은 처음부터 반말이었다. 한갓 오장파위의 반말질에 기홍은 대뜸 분기가 치밀었다.

「나 먼저나 라겠소。」 하고 뇌까린 왜병정은 기홍의 승낙은 기다리지도 않고 인력거군의 어깨를 왈살스럽게 떠밀었다.

「나리!」
눈은 인력거군을 간질한 눈길로 기홍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이 무엇을 하소한다는것을 기홍은 모르지 않았다.

「바가야로!」 하는 소리와 함께 왜병정은 인력거군의 면상을 후려갈렸다.

「어쿠!」
눈은 인력거군은 얼굴을 싸워었다. 조금뒤 손을 뻗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피호르는 그의 얼굴에는 무엇이든 형언할수 없는 고뇌의 표정이 어렸다.

기홍은 저도 모르게 칼자루에 손이 갔다.

「아서요, 장부의 검을 이 런에서 뽑지 마세요。」
향화가 그의 손을 잡았다. 왜병정은 인력거군을 깨물 듯 끌고 가버렸다.

권기홍의 심장은 모욕과 수치와 환멸로 아프게 울려 있었다.

한양거리의 분위기는 어느 때없이 살벌했다. 아침일찍 종로에는 난데 없는 보루가 쌓여지고 대포를 끌어다놓았다. 상점문들은 닫아걸렸고 곳곳에 누런 군복에 빨간 장화를 신은 왜놈헌병들이 버리고있다. 사람들의 성분출입을 금지시켜 인적이 끊어진 거리로 총대를 뻗 왜놈군대가 먼지를 일으켜 지나갔다.

(이놈들이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이러는가?!...)

왜놈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하루도 편한 날 없지만 이 아침의 류타는 생각에 권기홍은 불안과 긴장으로 신경이 날카로와졌다.

병영은 더욱 뒤숭숭했다. 장교들은 물론 일반병사들의 얼굴에까지 장미철하늘같이 침울한 표정이 어렸다.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왜놈들이 조선군대를 해산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던것이다.

이 뜻밖의 말을 들은 권기홍은 가슴속에 무거운 납덩이가 떨어지고 말미가 혼들리는듯싶은 착각을 느꼈다.

(군대를 해산하다니?! 군대가 없는 나라도 있는가?)
권기홍은 도대체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우리 민족사에 또 하나의 치욕으로 수록될 사변이 꾸며지고있을줄 그가 어찌 알았으랴.

어제 밤(1907년 7월 31일) 조선정부의 총리대신직을 차지하고있는 친일매국역적 리완용은 조선침략의 흉악한 원흉인 조선통감 이등박문을의 부름을 받고 그의 처소로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사실주의 풍경화가 리인문

리인문은 18~19세기 초 대표적 사실주의 풍경화가이다.

리인문은 당대의 사실주의 화가인 김홍도와 실학자의 한사람인 박제가와 가깝게 지냈던것으로 하여 그들의 영향하에 모방주의적인 창작태도에서 벗어나 사실주의 풍경화작품을 창작하였으므로 당시의 화단에서 김홍도와 쌍벽을 이룬만큼 유명하였다.

리인문은 풍경화와 함께 인물화, 화조화들도 많이 그렸다.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강산무진도》, 《질은 록음아래서》, 《사공》, 《김매기》, 《포구》 등이 전해지고있다.

《사공》은 당시 사공들의 생활의 한 단면을 반영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달뜨는 초저녁 갈대우거진 강변에 쪽배를 대어놓고 노를 배게삼아 누워 잠든 사공의 모습이 그려져있다.

한팔을 이마우에 얹고 배꼽까지 드러내놓은채 시름없이 단잠에 든 사공의 모습에는 소박하고 근면한 근로인민의 내면세계가 잘 나타나있다.

리인문의 이름은 《강산무진도》로 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이 작품은 깊은 산골짜기로부터 바다에 이르는 긴 강을 따라 펼쳐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경치를 보여주는 풍경화이다.

작품에는 험준한 산봉우리와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 흐르는 물과 오솔길, 군데군데 펼쳐진 마을, 집을 가득 실은 크고작은 짐배들과 고기배들이 실감있게 그려져 있다.

또한 하늘소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과 그늘 밑에서 더

위를 가시는 사람, 고기잡이하는 사람들과 포구에 닿을 내린 배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 등 많은 인물이 묘사되어있다.

작품은 당시 풍경화창작에서 자연을 리상화하던 도식적인 요소를 극복하지 못한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자연과 인간생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사회적 형편을 폭넓게 반영하였으며 높은 예술적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 풍경화에서 3대작품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본사기자



과가 두려웠던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불현듯 헤엄치는 이등박문의 조프린 기가늘길에 부딪치자 기가 질려 흥철 몸을 떨었다.

《왜, 마들지 랑소?》
이등박문의 랑행한 말에 리완용은 확같은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올시다. 그런데 황제폐하께서...》
《총리는 역시 역은 사람이외다. 책임을 혼자 지지 않겠

가까스로 고개를 쳐들던 리완용은 이등박문의 조프린 기가늘길에 부딪치자 기가 질려 흥철 몸을 떨었다.

《왜, 마들지 랑소?》
이등박문의 랑행한 말에 리완용은 확같은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올시다. 그런데 황제폐하께서...》
《총리는 역시 역은 사람이외다. 책임을 혼자 지지 않겠

가까스로 고개를 쳐들던 리완용은 이등박문의 조프린 기가늘길에 부딪치자 기가 질려 흥철 몸을 떨었다.

《왜, 마들지 랑소?》
이등박문의 랑행한 말에 리완용은 확같은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올시다. 그런데 황제폐하께서...》
《총리는 역시 역은 사람이외다. 책임을 혼자 지지 않겠

8월의 절기에는 립추와 처서가 있다. 립추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이며 처서는 여름더위가 가서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 시기는 찌는듯 한 무더위가 가서지기 시작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며 농작물 등이 무르익는 시기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들과잡이를 하거나 새나 짐승의 피해를 막을 목적으로 논밭에 허수아비를 세웠고 다음해농사를 위해 풀베기도 진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김장용담새를 싣고 가꾸는 일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민속무용과 민속놀이를 즐겨하였다.

대표적인 춤으로서는 어깨춤과 손벌춤, 두레놀이복춤을 들수 있다.

이 시기 진놀이와 가마전 놀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민속놀이도 널리 진행되었다.

진놀이는 상대편의 진을 어느 편이 먼저 점령하는가를 겨루는 놀이이고 가마전 놀이는 기마수로 선정된 한 명의 아이를 여러명의 아이들이 받쳐올리고 상대편의 기마수를 공격하는 놀이로서 아이들속에서 즐겨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8월절기의 계절적특성에 어울리는 수단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수단은 찹쌀 또는 흰쌀, 찰수수가루 등을 반죽하여 밤알만 얹어 건조시켜 찹쌀에 찻은 다음 물을 없애고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담그며먹는 음식이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8월절기의 계절적특성에 맞게 근면하면서도 다양한 생활습성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이어왔다.

올해의 립추는 8월 7일이며 처서는 8월 23일이다.

본사기자

피차일반

옛날 시장에 들러 닭알을 사려던 녀인이 대뜸 성을 냈다.

《닭알값이 너무 비싸요. 내가 하루종일 일한 값보다 더 비싸시니...》

그러자 닭알을 파는 녀인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그래 어쩔단 말이요. 우리 닭도 이 일을 맡고있고 온 하루를 바쳤어요.》

어느때없이(모든것이 여느 날과 달랐다.) 무거운 표정이 든듯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 만약 시...》 하며 리완용은 무릎 꿇음으로 나앉아 가살을 피웠다.

《만약시 병정놈들이 해산을 거역하고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한양장안의 무지한 백성들이 불순할 때 에— 그를 진압할것을 통감께 의뢰한다는 우리 황제의 명령도 또한 받아두는것이...》
《그건 넘려마오. 래일 새벽이면 하세가와군이 한양을 군대와 대포로 둘러쌀테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알고 물러가겠소이다.》
《그렇게 하시오. 동양평화를 위해 성의를 다하는 총리의 가혹한 심정에 대해서는 내 친황제폐하께 따로 보고 하리다.》
이처럼 상전과 주구의 공모 밑에 조선군대해산날자는 8월 1일로 정해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왜놈군대우두머리 하세가와가 그것을 진압하기로 약정되었던것이다.

아직 이런 막후총정까지 알지 못하는 권기홍은 울렁거리리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어 대대장방으로 갔다.

《자네도 출근했나?》